

『2024 박물관 · 미술관 주간』 기획

유연한 공간 : 연대의 힘

Flexible Space : The Power of Solidarity

일러두기

이 책은 『2024 박물관미술관주간』 기획
《유연한 공간 : 연대의 힘 Flexible Space
: The Power of Solidarity》공간연구
아카이브도록입니다.

Notice

This book is the Spatial Research Archive
Catalog for the exhibition "*Flexible Space:
The Power of Solidarity*", curated for the
2024 Museum Week.

『2024 MUSEUM WEEK』 Project

Flexible Space : The Power of Solidarity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With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it has been crafted as the official program of the "2024 Museum Week."

목차

Contents

| | | |
|---------------------------|--|----|
| 들어가는 말 | Introduction | 9 |
| 섬유방직공장 | Textile Mill | 13 |
| 교동미술관 | Gyodong Museum of Art | 17 |
| 여공에서 여성 예술가로 | From women workers to women artists | 21 |
| 에세이 | Essays | |
| 장소에서의 여성의 몸 —— 조은정 | Women's bodies in place —— Cho Eunjung | 25 |
| 이름없는 영웅들을 위한 소고 —— 박진희 | A Note for Nameless Heroes —— Park Jinhee | 31 |
| 참고사진 | Reference Photos | 37 |

우리는 "교동미술관 이전에 자리했던
섬유방직공장의 여공 500명을 기억합니다."

We remember "the 500 Women workers who worked here
before Gyodong Museum of Art was established."



들어가는 말 Introduction

1950년대 500여 명의 섬유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들은 제조업이 주를 이루던 한국사회를 깊어지는 든든한 노동력 중 하나였다. 메리야스와 재봉틀로 상징되는 섬유방직공장은 이제 지역 순수미술의 주요 거점으로서 미술인과 비미술인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 속 뮤지엄 공간이 지니는 장소성은 시대적 경험과 다양한 공간 속에 내포된 유무형의 상징을 거쳐 인문학적이고 미학적인 사고를 재생산하며 그 자체로서 사회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공간의 외형은 변화했으나 공간 고유의 지향점이 사람과 삶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것임에 착안한 유연한 공간:연대의 힘 Flexible Space, The Power of Solidarity 기획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변화하는 사회 양상에 대한 대응과 유희시설 활용을 통한 지역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유희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은 국내·외 여러 사례를 통해 선보여지고 있다. 교동미술관 공간연구 프로젝트의 차별점은 과거 섬유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서술, 재인식하고 동시대 다양한 장르의 여성 예술인들의 오브제를 오마주 전시함으로써 지역 유·무형 문화유산의 장소적 역할론과 공간 방향성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는 것이다. 시대적 요구에 의해 노동자와 가장의 역할을 부여받았던 여공들의 서술 퍼린 삶은 주체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동시대 여성성으로 결부되어 예술 현장으로 대체된 공간 속에서 새로운 궤적을 그려내며 재조명될 것이다.

공장에서 미술관으로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촉발된 뮤지엄 공간의 '장소성' 과 시대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연결되는 '여성성' 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의를 새롭게 주목하고 발견하게 되길 바란다.

In the 1950s, about 500 women workers in textile factories were one of the strong labor forces supporting Korean society, which was dominated by manufacturing. The textile mill, symbolized by the underwears and sewing machines, is now an important base for local visual arts, serving as a bridge between artists and non-artists. In this way, the placeness of the museum space in the city has become a social value in itself, reproducing humanistic and aesthetic thinking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times and the tangible and intangible symbols contained in various spaces. Although the appearance of the space has changed, the project *Flexible Space, The Power of Solidarity*, which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unique orientation of the space is towards people, life and the community, starts from here.

The cultural revitalization projects for idle industrial complexes and abandoned industrial facilities, which aim to respond to changing social trends and revitalize local areas by utilizing idle facilities, are being introduced through various cases at home and abroad. What distinguishes the spatial research project of Gyodong Museum of Art is that it describes and re-recognizes the value of the labor of women workers in textile factories in the past, and displays the objects of contemporary women artists of various genres, paying homage to the role theory and spatial direction of local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various ways. It means to search. The turbulent lives of women workers, who were assigned the roles of workers and heads of households by the demands of the times, are re-examined by drawing a new trajectory in a space replaced by the art scene, linked to contemporary femininity with independence and infinite potential.

From factories to museums, I hope you will pay new attention to and discover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local cultural heritage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placeness’ of museum spaces triggered by the local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and the ‘femininity’ formed and connected by factors of the times.

섬유방직공장
Textile Mill

유휴공간은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도시의 기능 변모 또는 쇠퇴와 더불어 인간의 활동이 없거나 사용성을 상실한 곳을 의미한다. 공간의 장소 맥락적 효용가치를 두고 판단할 때 비활성화된 공간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휴공간은 한편으로 새로운 장소 기능 부여와 인간 활동의 생성으로 인해 전환가치가 있는 공간 자원으로 작용하며 지역 사회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고 대안적 공간 실천의 한 형태로 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1950년대 전주 풍남동 구도심에 위치하였던 섬유방직공장 일대는 지금의 경기전 동문 부근부터 전주 중앙초등학교를 가로지르며 도시 전주의 지역산업 경제를 대표하는 생산시설로써 활용되었다. 당시 전주천 수질이 워낙 맑고 깨끗하여 흰 양(白羊)들을 풀어놓았다할 정도로 당시 면방직 제조업은 산업화 시대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든든히 마련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현대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기존의 공간기능을 상실하고 시설로서 정지된 채 방치되어 도시쇠퇴와 경관을 방해하는 요소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공장의 유휴건물은 전주한옥마을의 관광 개발화와 설립자 개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의지가 맞물려 지역거점 복합문화공간이자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지역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유휴 산업시설의 공간적 재생과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현재 미술관의 모태가 된 섬유방직공장의 과거 이미지를 추적하고 당시의 여성 노동자들이 머물렀던 공장의 장소적 가치와 지역 유산으로서의 상징성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일명 ‘여공’ 때로는 ‘공순이’라 불리던 여성 노동자들은 과거 1950~1970년대까지 국내 방직산업을 든든하게 이끌어왔다. 지금 미술관의 과거 유물로 남아있는 재봉틀은 그 시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착취의 대상이었던 여성 노동자들이 묵묵히 감내해 왔던 노동의 시간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고통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섬유방직공장 과거 기억을 재소환하는 전시 오브제로서 재봉틀은 근대화 과정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주체적인 역할에 대한 존중과 유의미한 가치를 부여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문화재생 측면에서 미술관의 과거 모습에 대한 다시 보기와 여성성, 노동성에 대한 의의를 재정립하는 작업은 향후 지역의 예술지형을 바탕으로 하여 미술관이 시대적 영감과 사유를 열어가는 과정 가운데 근원적 통찰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핵심어: 섬유방직공장, 여성 노동자, 근대화, 재봉틀, 지역 유산의 상징성, 여성의 노동 가치

A vacant space is a space that is unused and empty.

It refers to a place that has no human activity or has lost its usability due to the transformation or decline of urban functions due to various social and economic factors. It is classified as an inactive space when judged in terms of its place context utility value. On the other hand, these idle spaces act as spatial resources with transitional value due to the creation of new place functions and human activities, and have the potential to bring new vitality to communities and cities and to be regenerated as a form of alternative spatial practice.

In the 1950s, the area of the textile mill in the old downtown of Pungnam-dong, Jeonju, was used as a production site representing the local industrial economy of Jeonju City, extending from the area of today's Gyeonggijeon East Gate to Jeonju Jungang Elementary School. At that time, the water quality of the Jeonju Stream was so clear and clean that white sheep were said to have been released in it. At that time, the cotton textile industr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laying a solid economic foundation for the region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era. With the paradigm shift in modern society, the unused factory building, which had lost its original spatial function and could have been abandoned as a facility and become an element of urban decay and a blight on the landscape, was transformed into a tourist development of Jeonju Hanok Village and the founder's personal development. Combined with the will for culture and art, it has been established as a regional cultural complex and a representative cultural heritage of the region with socio-cultural value.

The project, in connection with spatial regeneration of idle industrial facilities and regional revitalization, this project traces the past image of the textile mill that became the basis of the current art museum, and seeks to look back at the place value of the factory, where women workers lived at the time, and its symbolism as a local heritage. Women workers, also known as 'women workers' and sometimes 'gongsuni,' were the reliable leaders of the domestic textile industry from the 1950s to the 1970s. The sewing machines, which remain as relics of the museum's past, now bear traces of the hours of work silently endured by women workers who were then exploited for low wages and long hours, as well as the pain they endured to protect their families. The sewing machine, as an exhibit that recalls the past of the textile mill, is used as an element that gives respect and meaningful value to the subjective role of women, which was not fully recognized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In terms of cultural regeneration, the work of reexamining the museum's past and redefining the meaning of femininity and labor will serve as a fundamental insight in the museum's process of opening to contemporary inspiration and thinking based on the regional art landscape.

Keywords: textile mill, women workers, modernization, sewing machine, symbolism of local heritage, value of women's labor

교동미술관
Gyodong Museum of Art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관계와 연대의 중요성이 점차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은 지역사회의 성장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 활동을 촉진하며 공동체의 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섬유방직공장의 유휴공간을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 교동미술관은 도시 전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지역의 미술지형을 확장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동미술관은 동시대 뮤지오그래피¹ 측면에서 점차 전시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고려한 전시 기획을 통해 일방적 의미전달을 넘어 관람자의 경험과 체험을 매개로 다각도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고자 한다. 유연한 공간:연대의 힘 Flexible Space, The Power of Solidarity가 서술하고자 하는 여성성 그리고 연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에 단초를 제공한 교동미술관의 지난 전시를 되돌아보고 더불어 《유연한 공간:연대의 힘 Flexible Space, The Power of Solidarity》가 설정한 전시의 제를 소개한다.

전북지역의 여성공예가 5인(강정미, 김이재, 김완순, 송수미, 유경희)으로 구성된 현대공예그룹 크로마가 참여한 《CHROMA》(2021)는 각기 다른 소재와 주제로 해체와 재구성을 반복하며 지역의 미술 언어를 담아내는 작업들을 조명하였다. 공예는 자신만의 감성과 내재된 기억의 단상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형분야로 《CHROMA》는 어머니, 가족을 바탕으로 한 서사와 시대적 여성성의 표출을 공예장르만의 독창성으로 풀어낸 전시로서 의미를 지닌다. 《리스타트Rest+Art》(2021)는 팬데믹 이후 치유와 회복 그리고 환경을 향한 재생의 메시지를 담은 전시로 지구와 인류를 지키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지역 여성예술가들(강현덕, 고보연, 김수진, 김영란, 이일순, 정하영)과 함께 풀어나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예술이 주는 안식과 연대를 향한 가치 회복을 지향하며 지역 예술가와 시민들이 다중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대안적 모색을 전시로 풀어나갔다.

공간의 과거 모델과 구성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대적인 영향으로 부여된 여성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공간:연대의 힘 Flexible Space, The Power of Solidarity》는 지역의 유·무형적 유산을 향한 미학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미술-영화-공연의 예술 장르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내포된 서사와 관계하는 인물, 상징들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오마주적 전시 구현으로 공간의 과거 성찰에서 출발한 연대의 메세지가 담길 것이다.

핵심어: 문화재생 사업, 지역 복합문화공간, 뮤지오그래피, 전시 커뮤니케이션, 오마주 전시

1 박물관학은 뮤지오그래피(museography)와 뮤지올로지(museology)로 분류하며 뮤지오그래피는 박물관학의 실용적이거나 응용적인 측면을 말하는데 이는 시노그래피(scenography; 전시 또는 무대디자인)과 구별되며 전시 공간을 설치하고 연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중, 메시지에 대한 이해, 유산 보존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하며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전시전문가는 컬렉션 큐레이터, 건축가 및 대중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evmuseography.wordpress.com/2015/04/05/museum-museography-concept/)

As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s and solidarity is increasingly demanded by various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regional cultural and artistic hubs have social value in that they promote the growth of local communities and citizens' voluntary artistic activities, and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recovery of the community. Gyodong Museum of Art, which used the unused space of a textile mill as a complex cultural space through a cultural revitalization project, actively embraces the cultural identity of Jeonju City and continues its efforts to expand the local art landscape.

Gyodong Museum of Art, which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ion, is increasingly considering the elements of exhibition commun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temporary museography¹, and through exhibition planning, the museum aims to go beyond the one-way transmission of meaning and form multi-dimensional communication and empathy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viewer.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femininity and solidarity that *Flexible Space, The Power of Solidarity* aims to describe, we will look back at the past exhibitions of Gyodong Museum of Art that served as the basis for this project and introduce the exhibition agenda set by 《Flexible Space, The Power of Solidarity》.

《CHROMA》(2021), which features Chroma, a contemporary craft group consisting of five women artisans from the Jeonbuk area (Kang Jeongee, Kim Leejae, Kim Wansoon, Song Soomee, and Yoo Kyunghee), repeats disassembly and reconstruction with different materials and themes, shedding light on works that embody the language of art. Craft is a formative field that can most dramatically express one's emotions and inherent memories, and 《CHROMA》 is an exhibition that unfolds narratives based on mother and family and the expression of femininity of the era with the originality of the craft genre. 《Rest+Art》(2021) is an exhibition with a message of healing and recovery after the pandemic and regeneration toward the environment, and the project was organized to discuss the issues of how to protect the earth and humanity with local women artists (Kang Hyunduk, Ko Boyun, and Kim Sujin, Kim Youngran, Lee Ilsoon and Jeong Hayoung). Aiming to restore the value of peace and solidarity that art provides, local artists and citizens created various networks and explored alternatives to common problems through exhibitions.

《Flexible Space, The Power of Solidarity》 is an aesthetic approach to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of the reg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ast models and members of the space, and the consideration of femininity given by the influence of time. By implementing a tribute-like exhibition that comprehensively embraces the artistic genres of art, film, and performance, and gives value to the characters and symbols related to the embedded narrative, it will contain a message of solidarity that starts from a fundamental reflection on space.

Keywords: cultural regeneration project, regional complex cultural space, museography, exhibition communication, homage exhibition

¹ Museology is divided into museography and museology. Museography refers to the practical or applied aspect of museology, which is distinct from scenography (exhibition or stage design) and includes all the techniques necessary to set up and direct an exhibition space. It involves taking into account factors such as audience, message comprehension, and heritage preservation, and these aspects make the exhibition specialist a mediator between collection curators, architects, and the public.

(evmuseography.wordpress.com/2015/04/05/museum-museography-concept/)

여공에서 여성 예술가로
From women workers
to women artists

과거 섬유방직공장의 생산주체는 여성 노동자인 여공들이었다. 세월이 흘러 지금 그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과거 공장에서 실제 사용했던 재봉틀은 저임금과 비숙련노동에 내몰렸던 여공들의 노동의 가치가 집약된 물리적인 유기체 그 이상으로서 그 상징성을 지닌다. 과거 기억의 상징적인 매개체로서 재봉틀은 과거의 여성 노동자들의 여성성, 여성 노동자들의 헌신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고 전시 오브제로서 과거의 비존재론적 여성성을 현재 주체적 가치로서의 여성성으로 연결해 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유연한 공간: 연대의 힘 Flexible Space, The Power of Solidarity》가 조명하고자 하는 여성성은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과 지역 여성 예술가들에 대한 존재론적 모색과 역할성에 관한 것이다. 섬유방직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로 인해 한 집안의 가장과 노동자라는 여성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인식과 전통적 사고방식 아래 이들의 여성성 곧 여성들의 주체적 역할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 제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² 이번 프로젝트만으로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역할과 노동 가치를 재논의하기에는 근거나 사실자료 부족 등의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남아있지만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여성의 시각과 관점이 수반된 작업을 전개하며 지역 미술의 다양한 층위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여성 예술가들이 예술적 접근으로서 확장하게 될 여성성과 이와 연결된 문화예술 공간의 역할 방향성 재고는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통찰과 의식을 가져올 것이다.

고보연은 <땀기_그 연대의 힘> (2023)으로 버려진 옷들과 폐기된 원단을 사용하여 여성들의 연대의 힘과 관계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여성적인 노동에서 기인한 작업의 행위는 여성성이라는 인식 속에 간혀있던 여성 노동에 대한 가치를 회복시키고 이를 예술적 영역 안에서 미학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삶의 트로피> (2024)와 <풀꽃엄마> (2023)를 통해 부모의 삶과 일상을 추억하며 기록해 내는 김영란은 가치 없이 소실될 수밖에 없었던 엄마로 상징되는 여성들의 존재를 향한 예찬과 먹먹함을 실제 사용했던 기물과 옷가지를 빌려 형상화한다. 춘자라는 자신의 할머니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한 <퀸의 뜨개질> (2023)의 조한나는 사회적 인식의 틀 속에서 여성성을 부여받은 춘자에게 주체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한나와 같은 독립적인 여성들을 긍정하고 대변해 낸다.

여공에서 여성 예술가로. 이는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 내재하고 타자화된 섬유방직공장 여공들의 존재와 역할 가치를 미학적인 인식 속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나아가 예술적 개입과 해석을 통해 사회와 삶을 다시 바라보며 그 의미를 확장하는 계기로 마련되길 바란다.

핵심어: 여성성, 여성 예술가 연대, 사회현상의 예술적 접근, 여성성의 미술사적 가치

2 삼백산업(1950년대 미국의 원조 물자를 통해 성장한 제분製粉, 제당製糖, 면방직綿紡織 공업을 일컬으며 당시 한국 자본주의의 산업적 기반을 조성함) 중 하나로서 국내 면방직산업은 인천, 전주, 광주 일대에 분포하며 빈곤했던 전후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방직산업분야 여공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움직임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 구술채록집 「땀을 녹여 소금꽃을 피웠다」(2022, 광주여성가족재단 펴냄), 구로공단 금천 순이의 집(노동자 생활체험관) 관련 기사내용 등을 참고하였다.

In the past, textile mills were run by women workers. Although their traces are no longer visible today, the sewing machines that were actually used in the mills of the past are more than just physical objects, they are symbols of the value of the labor of women who were relegated to low-paid, unskilled labor. As a symbolic medium of past memories, the sewing machine will be given equal status with the works of women artists as an exhibition object that captures the femininity and dedication of women workers in the past, and will serve to connect the non-existent femininity of the past to the femininity of the present as a subjective value.

The femininity that 《Flexible Space, The Power of Solidarity》 seeks to illuminate is the ontological quest and role of women factory workers and local women artists. Due to the demands of the time, women workers in textile factories were given femininity as heads of families and workers. However, under the social consciousness and traditional thinking of the time, the true meaning and value of their femininity, that is, the subjective role of women, was not properly enhanced.² Although there are clear practical limitations, such as lack of evidence or factual data, in re-discussing the role and labor value of women workers at that time, with this project alone, we are developing work that includes women's perspectives and viewpoints based on local identity and cultural background to promote local art. Rethinking the direction of femininity, which will be expanded as an artistic approach by women artists who create different layers and meanings, and the role of cultural and artistic spaces related to it, will bring new insights and consciousness to the local community.

With <Braiding_The Power of Solidarity> (2023), Ko Boyun uses discarded clothes and discarded fabrics to talk about the power of solidarity and the network of relationships among women. In particular, the acts of work that originate from feminine labor restore the value of women's labor, which has been trapped in the perception of femininity, and give it an aesthetic perspective within the artistic realm. Kim Youngran, who documents her parents' lives and daily routines through her works <Trophys of Life> (2024) and <Grass Flower Mother> (2023), borrows actual used objects and clothing to express her admiration for the existence of women symbolized by mothers, who were destined to be lost without value. In <Queen's Knitting> (2023), Cho Hanna, who started from her memories of her grandmother, Choonja, conveys a subjective message to Choonja, who is given femininity within the framework of social perception, affirming and representing independent women like Hanna.

From workers to artists. It is hoped that this exhibitio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take a fresh look at the existence and role value of textile mill women, which has been inherent and otherized by social and contemporary demands, through aesthetic awareness, and also to look at society and life again and expand its meaning through artistic intervention and interpretation.

Keywords: femininity, women artists' solidarity, artistic approach to social phenomena, art historical value of femininity

² As one of the three major industries (flour, sugar, and cotton textile industries that grew with U.S. aid in the 1950s, creating the industrial foundation of Korean capitalism), the domestic cotton textile industry, located in Incheon, Jeonju, and Gwangju, becam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impoverished postwar Korean economy. As a movement to restore the human rights of women workers in the textile industry, the Gwangju Women's Family Foundation's oral history collection *Melting Bones and Blooming Salt Flowers* (2022, published by the Gwangju Women's Family Foundation) and articles on Geumcheon Suni's House (Workers' Life Experience Center) in Guro Industrial Complex were referenced.

장소에서 여성의 몸
Women's bodies in place

조은정 Cho Eunjung
미술사학자, 미술평론가
Arthistorian, Artcritic

머리에 광주리를 인 채 산길을 돌아서는 아낙, 마당 안에서 절구질이나 맷돌질을 하는 여인 그리고 등에는 아이를 들쳐업고 노상에서 장사하는 어머니는 한국사회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에 강조된 향토색과 함께 자연 속에 존재하는 순수한 생명의 상징으로서 여성 그리고 전후 생계를 이어가던 고달픈 가장의 무게를 지고 있지만 현모양처의 미덕을 지닌 어머니의 이미지는 토속성과 함께 강렬한 한국적인 이미지의 일부가 되었다.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그 시대 여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1980년대의 일부 여성주의미술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착취당하는 여성의 노동과 인권의 문제를 보여준다. 공장노동자 여성이 화면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이 시기 일련의 작품에서는 물론 여성, 주변부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례를 지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여성노동자의 발언이 드러난 작품은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담보로 한 노동 착취 구조 아래 여성노동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데 크게 작용하였음에는 이르지 않다.

어리고, 여성이고, 가난한 탓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를 화면의 표면에 드러내어 기록하고 은폐의 겉옷을 들추어내었다. 당시 여성미술가들에게 미술이란 사회구조를 고발하고 변혁시키기 위한 도구였다. 당대 민중미술 남성작가들에게 미술이 무기였다면, 여성미술가 김인순³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에게 미술은 쟁기이며 나팔이었다. 이 점진적인 도구성이야말로 사회적이며 장기적인 노동의 과정을 의미하기에 주요한 언어적 표현이다.

80년대 화면 속 여성노동자는 근로복에 가려진 블루칼라, 여성성이 가려진 노동자의 몸으로 그곳에 있음을 보여준다. 험령한 옷과 바지로 가려진 그들의 몸은 사회 안에서 노동하는 주체의 몸을 보여준다. 동일한 노동에 동일하지 않은 임금의 상징이기에 여성성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이후 유리천장으로 대변되는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은 어머니와 모성을 소환하여 여성의 위대함을, 우리 모두 여성의 아이임을 부각시켜왔다. 몸에서 몸으로 이어진 물질성과 그 안에 담긴 정신의 근원에 대한 고찰은 여성문제가 가부장제 아래 강조되고 체계화한 제도임을 드러내 주었다. 더불어 여성의 차별이 월경과 같은 신체에 근거한 데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닷물을 드나들게 하고 생명을 싹틔우는 조용하고도 강한 달의 힘임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였다. 개별자로서 여성의 몸이 주체로 등장한 이후 여성미술은 억압받고 소외되는 모든 약하고 어린 것들의 대명사로서, 장애인, 외국인, LGBT⁴를 포용한 차별적 시선에 대항하는 한 전형으로서 확고히 되었다.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한 각성과 비정은 확장되고, 포용함으로써 모성을 넘어선 지대에서 여성성을 정의내리고 연대를 도모한다. 착취와 억압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은 타자를 용인하는 관용이며 나아가 함께하는 포용성이며 더 나아가 동지로서 나란히 하는 것이다.

3 김인순(b.1941), 서양화가. 80년대 한국의 여성주의 예술은 김인순, 윤석남, 김진숙 작가를 필두로 모임이 조직되었다. 김인순은 1986년 여성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낸 작품 <현모양처>를 제작했으며 1995년작 <황혼>을 통해서도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의 지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하였다.

(아트인사이트-Opinion 한국의 여성주의 예술가를 소개합니다 2019. 4. 15)

4 LGBT : 성적소수자를 지칭하는 약어.

A woman walking down a mountain path with a basket on her head, a female grinding or milling in her yard, and a mother selling on the street with a child on her back all show the historical situation of Korean society. Along with the local colors emphasiz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images of women as symbols of pure existing in nature, and of a mother with the virtue of being a wise mother and good wife despite mothers who bear the burden of the hardships of life after the Korean War, became a part of the strong Korean image along with the local characteristics.

The image of working women in the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n art reflects the evaluation of women at that time. Some feminist art of the 1980s shows the issues of labor and human rights of women exploited in the capitalist system. Of course, the postmodern baptism of women and the periphery cannot be erased in a series of works from this period in which women factory workers appear as the subject of the canvas. Nevertheless, there is no theory that the works in which workers' comments were revealed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aising awareness of the problems of women's labor under the structure of labor exploitation that guaranteed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ho could not enter the higher schools because they were young, female, and poor, were exposed and recorded on the surface of the canvas, and the cloak of concealment was lifted. For female artists at that time, art was a tool to expose and transform social structures. If art was a weapon for the male popular artists of the time, for the female artist Kim Insoon³, it was a plow and a trumpet. This progressive instrumentality is an important linguistic expression because it signifies a social and long-term labor process.

Women workers on the canvas in the 1980s are shown as blue-collar workers in work uniforms, with workers whose femininity is hidden. Their bodies, covered by baggy tops and pants, show the bodies of subjects who work in society. Because it is a symbol of unequal pay for equal work, it does not emphasize femininity. Since then, the invisibl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presented by the glass ceiling has invoked mothers and motherhood to emphasize the greatness of women and that we are all women's children. An examination of the materiality connected from body to body and the origin of the spirit contained therein revealed that women's issues were emphasized and systematized under patriarchy. In addition, although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began with physical issues such as menstruation, works began to appear that showed that it was the silent yet powerful force of the moon that allowed us to move in and out of seawater and sprout life. Since the emergence of the female body as an individual subject, women's art has become a byword for all the weak and young who are oppressed and marginalized, and has become a model for opposing discriminatory views that embrace the disabled, foreigners, and LGBT⁴ people.

The awakening and redefinition of women's place in society is expanded and embraced to define femininity beyond motherhood and to promote solidarity. Breaking out of the

³ Kim Insoon (b.1941), Painter. The Korean feminist art group was organized and led by artists Kim Insoon, Yoon Suknam, and Kim Jinsook. Kim Insoon produced her work <A Good Mother and Wife> in 1986, which realistically expressed women's lives, and her 1995 work <Twilight> also suggested that the status of women in a patriarchal society had not changed significantly. (ART INSIGHT-Opinion *Introducing Korean feminist artists*, April 15 2019)

⁴ LGBT : Abbreviation for sexual minorities.

차장, 공순이라 불리운 여성들은 그들의 직업이 비천하거나 인격적 부족함이 아니라 사회에서 경제적이며 노동 착취의 대상이어서, 그러한 구조를 은폐하기 위해 대상에 무능한 프레임을 덧씌웠던 것임을 인지한다고 해서 공범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게다.

공순이라 불리던 여성 노동자들이 그득했던 낡고 오래된 공장건물이 여성노동자의 근로 현장에서부터 복합문화공간으로 모습을 바꾼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안을 서성이는 유령 같은 여성이라는 개념을 만난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35,000달러가 넘었고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을 초과한 시점에도 남편·연인 등 가까운 관계의 남성에게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위협을 받은 여성은 1.96일에 한 명꼴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회에서 여성은 노동하는 몸, 발언하는 몸, 응시의 대상으로서 몸을 넘어 존재 자체로서의 존엄성을 위한 도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여성미술이 여전히 쟁기이고 나팔인 것은 이러한 이유에 있다. 느슨하고도 유연한 여성들의 연대는 길고도 오랜 시간의 발을 가는 노동 뒤에는 반드시 추수의 시간이 오는 것을 아는 이들만이 행할 수 있는 행진이다. 계급, 교육, 빈부, 피부색을 넘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발걸음들이다.

structures of exploitation and oppression is not only tolerance of the other, but also inclusion, and even more so, side by side as comrades. Recognizing that the women who were called sidekicks and gongsuni were not inferior or lacking in personality, but rather were subject to economic and labor exploitation in society, and that a frame of incompetence was placed on them to cover up such structures, does not remove their guilt of complicity.

Even after the old factory building full of women workers called gongsuni changed its appearance from a workplace for women workers to a complex cultural space, we still encounter the concept of a ghost-like woman wandering around inside. Even at a time when Korea's per capita gross national income exceeded \$35,000 and the college enrollment rate of female students exceeded that of male students, the number of women killed or threatened with death by a man in a close relationship, such as a husband or lover, is approximately one every 1.96 days. In a society where life is threatened simply for being a woman, women need tools for dignity as a working body, a speaking body, and an object of gaze beyond their bodies. That is why women's art is still a plow and a trumpet. The loose and flexible solidarity of women is a march that can only be carried out by those who know that after long hours of work plowing the fields, the time of harvest inevitably comes. These are steps to prove the immutable truth in the world beyond class, education, rich and poor, and color: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

이름없는
영웅들을 위한 소고
A Note
for Nameless Heroes

박진희 Park Jinhee
예술가 Artist

꽃보다 연둣빛이 고운 봄날이다.

제주도는 이맘때면 꽃들을 시새워 하듯 아침저녁으로 비가 오고 바람 끝이 차다, 일명 고사리 장마라고 하는데 나에게 고사리에 대한 기억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라는 비유를 싫어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던 쌍니네 마을 이야기로 기억된다. 그 시절에는 학교에 오는 것보다 밭으로 들로 일을 나가는 벗들이 더 많았다. 쌍니네 이웃 언니가 고사리 꺾으러 나섰다가 뱀에 물려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던 이야기. 어린 우리에게 충격이었다. 그 이듬해 쌍니도 학교에 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쌍니는 나보다 세 살이 많았고 쌍둥이였던 쌍니는 언니와 함께 도시로 돈을 벌러 갔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이들의 나이는 고작 열네 살이었다. 어디 쌍니뿐이었을까? 가난은 죄가 아니었지만 딸들은 도시로 가는 버스를 선택해야 했다.

《유연한 공간: 연대의 힘 Flexible Space, The Power of Solidarity》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잊었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섬유방직공장이었던 교동미술관의 장소성 때문이었던 것 같다. 당시의 가부장적 사고와 사회적 인식은 여성의 돌봄과 노동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연했던 그 역할이 가족을 살리고 사회를 버텨온 동력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적 통념을 불편해 하고 인지부조화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여성의 삶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여성 예술가들의 질문과 사유로 재해석 되는 작업의 과정은 잊히거나 불리지 못했던 누군가의 이름을 호명해 내는 시간이 되어주리라고 생각한다. 나무도 회전하며 나이테를 만들고 사람도 그렇게 휘몰아치는 시간을 지문에 새기며 살아간다. 휘몰아치며 압축적으로 성장한 우리 사회가 놓치고 온 여성의 노동력 그리고 끊임없이 회전하는 돌봄의 노고 속에서 여성의 서사가 휘발되지 않고 기억되고 기록되는 현상이 되길 바라본다.

《이어질 풍경》⁵전에서 임정희 선생님은 깃발 없는 개인의 연대를 언급하였다. 여성 예술가들의 느슨한 연대가 어찌면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바로잡고, 불리지 못한 이름들을 호명하는 주체가 되고, 삶의 행간을 위협하는 편견들을 흔들고, 공감으로 마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양가감정에서 비켜서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면서 교동미술관의 장소성과 철학적 방향성이 주는 메시지 역시 여성의 노동력과 정체성을 사회는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끊임없는 유무형의 질문과 성찰들로 담아갈 것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여성성’에 대한 고찰로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의를 새롭게 주목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주체적인 역할에 대한 존중과 유의미한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그리고 여성성, 노동성에 대한 의의를 재정립하는 작업은 향후 지역 예술 지형을 바탕으로 시대적 통찰과 사유를 열어갈 교동미술관의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5 ‘도래할 풍경’은 사회 변혁의 주제로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을 깨기 위한 예술가들의 질문과 성찰을 담은 전시이다. 2021년을 시작으로, 2022 도래할 풍경 《매일 매일 내일》은 암묵적으로 부여된 여성의 역할과 창작하는 현실 사이에서 종횡무진하는 여성 예술가 24인을 중심으로 전주와 제주에서 진행되었다.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어질 풍경》은 여성미술 1세대 작가인 박영숙, 윤석남, 홍이현숙, 정정엽과 한국 여성미술을 대표하는 김종래, 방정아, 임정희의 인터뷰 영상 전시로써 여성주의 미술의 세대 간 연대와 새로운 여성주의 미술에 대한 과제와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It is a spring day when the color of green is more beautiful than that of flowers.

At this time of the year, it rains in the morning and evening on Jeju Island, and the wind is cold as if it were jealous of the flowers. It is called the fern rainy season. For me, the memory of ferns is also an opportunity to dislike the metaphor of ‘with hands like ferns.’ I remember the story of Ssangni's village, where we were in the same primary school class. At that time, more friends went to work in the fields than came to school. The story is about how her neighbor's big daughter went out to pick bracken and was bitten by a snake and never returned home. It was a shock to us because we were so young. The following year, Ssangni did not come to school either. I later found out that she was three years older than me and had her own twin, and that she and her older sister had gone to the city to earn money. Now that I think about it, they were only fourteen years old. Was it just Ssangni? Poverty was not a sin, but the daughters had to take the bus to the city.

When I heard that the exhibition 《Flexible Space, The Power of Solidarity》 was opening, forgotten memories came to the surface, probably because of the location of Gyodong Museum of Art, which used to be a textile factory. The patriarchal thinking and social consciousness of the time did not recognize women's care and labor and did not realize that their natural role was the driving force that saved the family and sustained society. I expect that this project will be an opportunity to become uncomfortable with social norms, to reveal cognitive dissonance, and to reflect on the value and meaning of women's lives. In particular, I believe that the process of reinterpreting the work through the questions and thoughts of women artists will serve as a time to call out the name of someone who has been forgotten or not called. Trees also rotate to create growth rings, and people also live by engraving the turbulent times of time in their fingerprints. I hope that this will become a place where women's narratives are remembered and recorded, rather than volatilized, in the midst of women's work that has been overlooked by our rapidly and compressedly growing society, and the constantly rotating labor of care.

In the exhibition 《Landscapes to Come》⁵ Lim Junghee refers to the solidarity of individuals without flags. The loose solidarity of women artists could perhaps be a message that we can correct the tilted playing field of our society, be the ones to call out the unnamed, shake the prejudices that threaten our lives, and greet them with empathy. The message of the placeness and the philosophical direction of Gyodong Museum of Art will also be captured by constant tangible and intangible questions and reflections on how society remembers women's labor and identity and how they have changed. As mentioned above, the process of rediscovering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local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examination of “femininity,” giving respect and meaningful value to the subjective role of women that was not fully recognized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and redefining the meaning of femininity and labor is expected to open up contemporary insights and thoughts based on the local art landscape.

⁵ “Landscapes to Come” is an exhibition of artists' questions and reflections on overcoming social prejudice and inequality as agents of social change. Beginning in 2021, Landscapes to Come, 《Everyday and Tomorrow》 will be held in Jeonju and Jeju City in 2022, focusing on 24 women artists caught between the implicit roles of women and the reality of creation. The exhibition features interviews with Park Youngsook, Yoon Seoknam, HongLee Hyunsook, and Jung Jungyup, the representatives of the first generation of women's art, and Kim Jongrye, Bang Jeonga, and Lim Junghee, those of Korean women's art, to reflect on th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of feminist art and the challenges and directions of new feminist art.

하찮은 것은 없다.

작은 풀잎조차도 춤처럼 바람에 눕고 지극함으로 뿌리를 내리듯 기록되지 못한 이름들을 호명하고 여성의 삶과 서사를 예술로 기록해 가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지지와 연대의 한걸음이 되어가길 바란다. 더불어 교동미술관의 장소성과 예술가들의 질문이 만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지역 예술의 중력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Nothing is trivial.

I hope that this project will be a step of support and solidarity, as even a small blade of grass lies in the wind like a dance and takes root with the utmost care, calling out unrecorded names and recording women's lives and narratives through art. I also hope that the placeness of Gyodong Museum of Art and the artists' questions will broaden the spectrum and become a gravitational force for local art.

참고사진
Reference Photos



사진1 교동미술관 옛터(現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일대)에 위치했던 면방직기업
주식회사 백양의 모습

The former site of Gyodong Museum of Art (now Pungnam-dong, Wansan-gu, Jeonju-si), a cotton textile company, Baekyang



사진2 과거 섬유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
Women workers at a textile mill in the past



사진3 주식회사 백양(BY)의 사내 조희 풍경
In-house view of Baekyang(BY) Co.



사진4 교동미술관 본관의 과거 건물 외형 모습
Exterior view of the former main building of Gyodong Museum of Art



사진5 교동미술관 본관의 과거
건물 외형 모습
Exterior view of the former
main building
of Gyodong Museum of Art



사진6 과거 면방직관련 제조업 흔적이 남아있는 골뚝과 생산설비 전경
View of chimneys and production facilities that still retain traces of the
cotton textile industry in the past



사진7 1990년대 말까지 이어졌던 완산구 풍남동 일대의 섬유 관련 제조업 운영 흔적

Traces of textile-related manufacturing operations in Pungnam-dong, Wansan-gu until the late 1990s



사진8 완산구 풍남동 일대 섬유 관련 제조 기업체 모습 (현재 교동미술관 본관의 옛 모습)

Textile-related manufacturing enterprises in Pungnam-dong, Wansan-gu (former site of the current Gyodong Museum of Art)



사진9 완산구 풍남동 일대 섬유 관련 제조 기업 운영 모습
(현재 교동미술관 본관 내부)

Textile-related manufacturing companies operating in Pungnam-dong,
Wansan-gu (inside the current Gyodong Museum of Art main building)



사진10 완산구 풍남동 일대 섬유 관련 제조 기업 운영 모습
(현재 교동미술관 본관 내부)

Textile-related manufacturing companies operating in Pungnam-dong,
Wansan-gu (inside the current Gyodong Museum of Art main building)



사진11 현재 교동미술관 본관 전경
View of the current Gyodong Museum of Art main building



사진12 현재 교동미술관 2관 전경
View of the current Gyodong Museum of Art second building

유연한 공간 : 연대의 힘

Flexible Space : The Power of Solidarity

| | | | |
|---------|--------------------------------------|------------------------|--|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ICOM Korea | Hosted by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Korea Rep |
| 주 관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Organized by |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
| 총괄·연구기획 | 정하나 | General-Researched by | Jeong Hana |
| 전시 기획 | 박진영 | Curated by | Park Jinyoung |
| 진행 | 이순주 | Curatorial Assistant | Lee Soonjoo |
| 교육 | 정은경 | Education | Chung Eunkyung |
| 사진 | 교동미술관 소장본 | Photograph | the collection of Gyodong Museum of Art |
| 영상 촬영 | 비스켓컴퍼니 | Video Production | Visket Company |
| 디자인·편집 | 박진영 정하나 | Design-Edited | Park Jinyoung Jeong Hana |
| 번역 | 프라임번역 | Translation | Prime trans Solution |
| 인쇄 | 모던칼라 | Print | Moderncolor |
| 공간 조성 | 뷰디자인 | Space composition | Viewdesign |
| 운송·설치 | 그림창고 | Shipping·Installation | Grim Changgo |
| 기술 설치 | 빔플 전복지점 | Technical Installation | Beample |
| 연구 평론 | 조은정 박진희 | Research critique | Cho Eunjung Park Jinhee |
| 인문학 강연 | 허경 신승은 | Lecture on Humanities | Huh Kyoung Shin Seungeun |
| 퍼포먼스 | 정중웅 최민선 | Performances | Jeong Jongung Choi Minseon |
| 발행인 | 김완순 (교동미술관장) | Publisher | Kim Wansoon |
| 발행일 | 2024. 5. | Publication Date | 2024. 5. |
| 발행처 | 교동미술관 | Published by | Gyodong Museum of Art |
| I S B N | 979-11-985748-4-8 | ISBN | 979-11-985748-4-8 |

© 교동미술관, 2024

이 도록에 수록된 사진 및 글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그 외의 내용과 편집에 관한 권한은 교동미술관에 있습니다.

교동미술관

5504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89
www.gdart.co.kr
063-287-1245

© Gyodong Musuem of Art, 2024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by any manner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and publisher.

Gyodong Museum of Art

89, Gyeonggijeon-gil, Wansan-gu,
Jeonju-si, Jeonbuk-do, Republic of Korea
www.gdart.co.kr
063-287-1245